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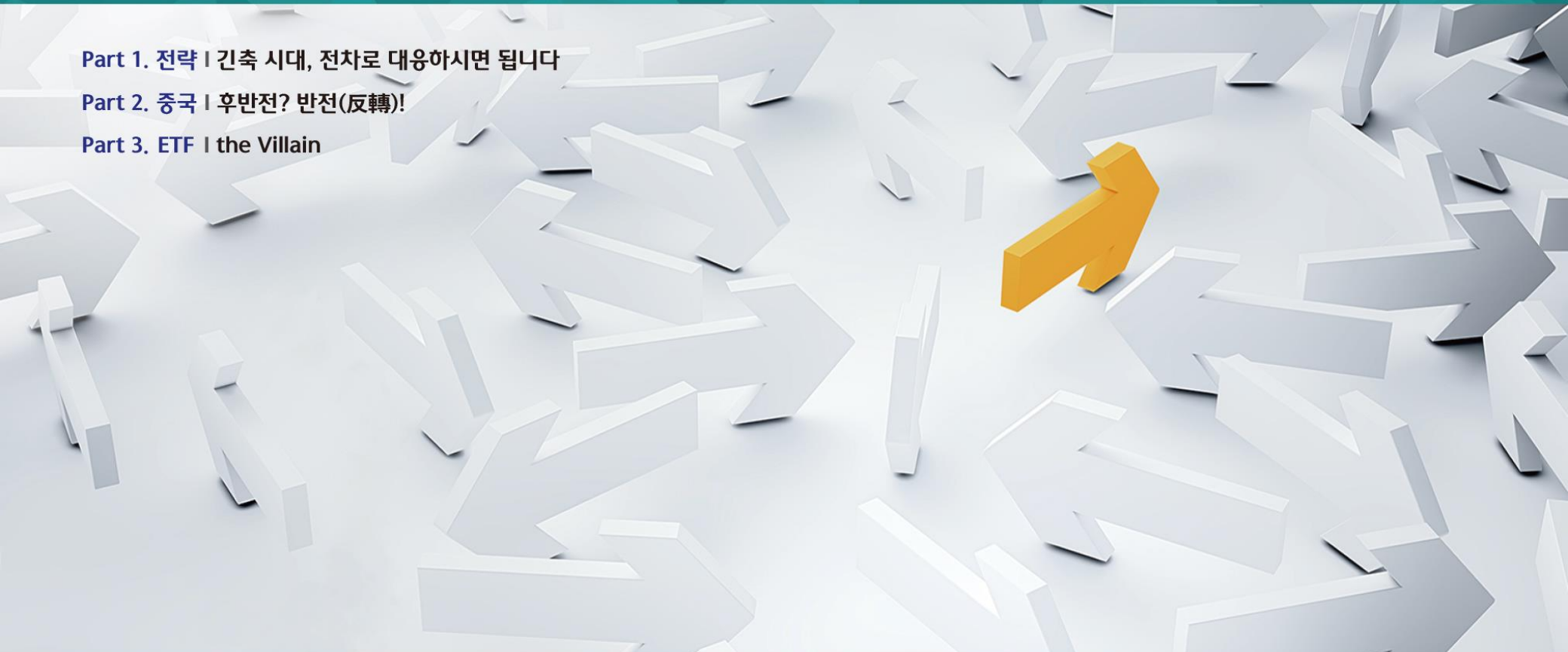
하나금융투자 2022 하반기 전망 | 2022년 5월 2일

#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Part 1. 전략 | 긴축 시대, 전차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Part 2. 중국 | 후반전? 반전(反轉)!

Part 3. ETF | the Villain



<b>Strategist 이재만</b> 02-3771-7547 duke7594@hanafn.com	<b>중국/신흥국전략 김경환</b> 02-3771-7616 khstyle11@hanafn.com	<b>ETF/해외채권 박승진</b> 02-3771-7761 sj81.park@hanafn.com	<b>주식시황 한재혁</b> 02-3771-3112 jaehyukhan@hanafn.com	<b>RA 박지원 02-3771-7676</b> <b>RA 김근아 02-3771-7698</b> <b>RA 임소정 02-3771-7520</b>
--	---	---	--	--





---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Part 3. 하반기 ETF 전망

---

the Villain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팀

Global ETF / FI 박승진

E-mail: [sj81.park@hanafn.com](mailto:sj81.park@hanafn.com) / Tel : 02-3771-7761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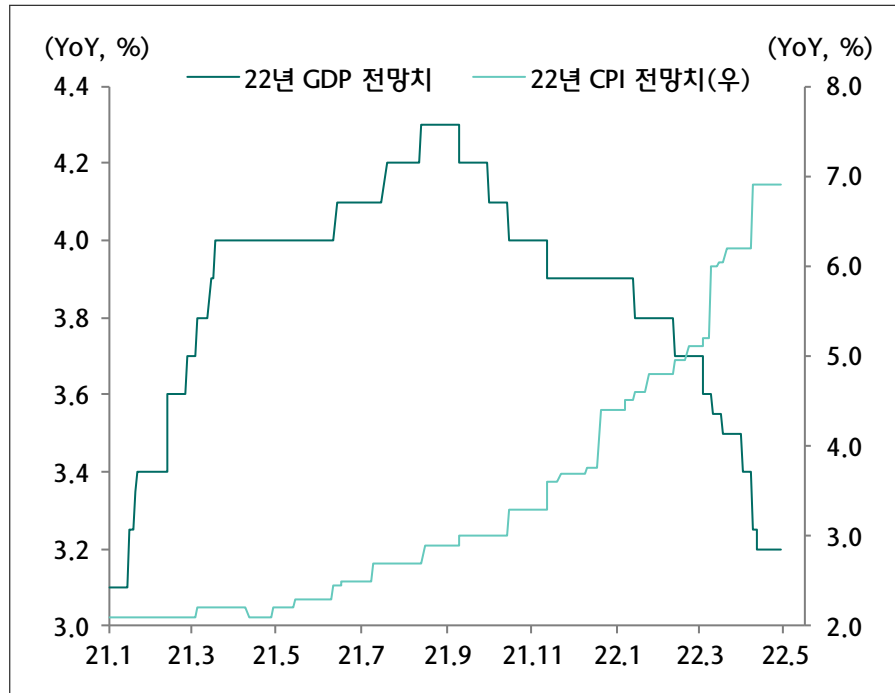
## 하반기 ETF 전략: 불확실성 국면. 테마 및 섹터 선택의 중요성↑

- 긴축 진행 가운데 러시아 발(拔) 불확실성 지속. 시장 탄력 둔화 전망. 테마, 섹터 모멘텀 중심의 대응 필요
  -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가운데 하반기 중 펀더멘털 둔화 시그널 증가 예상
  -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성상 후행적 변화 나타날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가 불안(상품가격) 지속되는 가운데 유동성 감소와 수요 불확실성이 위험자산의 가격상승을 제한할 것
  - 채권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중장기 구간을 중심으로 금리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유동성 환경 변화 및 경기 둔화 가운데 업종, 종목 선택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
  - 금융시장 전반의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가운데 보다 명확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테마, 섹터 ETF를 활용한 대응전략이 필요
  - 정상화 국면에서 증가하는 여행 수요와 더불어, 러시아 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반영될 변화의 모멘텀들이 대표적 사례
- 하반기에 관심이 필요한 글로벌 ETF 종목
  - JETS(항공), BEDZ(호텔), CRUZ(크루즈), JRNY(여행), AWAY(여행): 엔데믹 과정에서 Q(물량)가 늘어날 수 있는 여행업
  - ITA, XAR(방산, 우주항공):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모멘텀 부각 가능성
  - URA, URNM(원전, 우라늄): 에너지 수급 불안 가운데 대안 확보 필요. 탄소 배출량 낮은 원전 관련 투자계획 증가
  - ICLN, PBW, QCLN, TAN(친환경): 각국의 정책 지원 지속. 메가 트렌드의 시각에서 관심. 다만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변동성 경계
  - CIBR, BUG, HACK, IHAK(사이버보안):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이슈 영향으로 사이버보안 시장의 성장 가속화 전망
  - MOO, DBA(농산물, 농업): 애그플레이션 국면에서 농업 테마에 대한 관심 증가. 선물 ETF를 활용해 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
  - 고배당 ETF: 주가지수 탄력 둔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안정시키는 대안 전략으로 활용

## 편더멘탈 및 금융시장 환경: 시장 모멘텀 둔화 국면. 테마 중심 대응 필요

- 인플레이션 안정 위한 연준의 적극적 정책 대응 지속. 긴축, 소비 여력 약화 영향으로 편더멘탈과 시장 모멘텀 둔화 불가피
- 하반기 중 인플레이션 정점 형성 이후 편더멘탈 반영한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 중장기 구간 중심의 금리 안정 예상
- 긴축 부담 완화에도 경제 및 이익 성장률 약화되며 주식시장은 제한된 등락 이어갈 전망. 테마 및 섹터 로테이션 중심의 대응 필요

### 미국의 연간 GDP, CPI 전망치: 성장 둔화, 물가 상승



## 하반기에 주목할만한 글로벌 ETF 종목들

- 여행(JETS/BEDZ/CRUZ/JRNY/AWAY), 방산&우주항공(ITA/XAR), 사이버보안(CIBR/BUG/HACK/IHAK)
- 원전&우라늄(URA/URNM), 친환경(ICLN/QCLN/PBW/TAN), 농산물(MOO/DBA), 고배당주 ETF

### 하반기 글로벌 ETF 종목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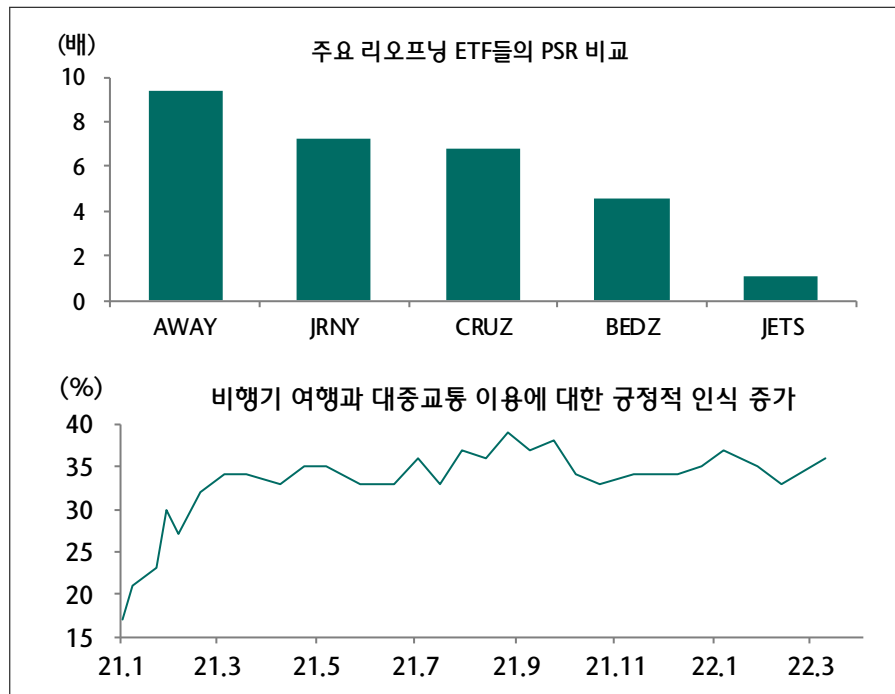
티커	펀드명	추종 대상	AUM(\$M)	일 평균 거래대금 (\$M)	보수율	상장일
JETS	U.S. Global Jets ETF	항공	3,450	194.62	0.60%	2015-04-28
BEDZ	AdvisorShares Hotel ETF	호텔	6.9	0.10	0.99%	2021-04-20
CRUZ	Defiance Hotel, Airline, and Cruise ETF	크루즈, 항공	41.4	1.30	0.45%	2021-06-03
JRNY	ALPS Global Travel Beneficiaries ETF	호텔, 레저	6.8	0.22	0.65%	2021-09-07
AWAY	ETFMG Travel Tech ETF	여행 플랫폼	287	4.71	0.75%	2020-02-12
ITA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 ETF	우주항공/방산	3,840	81.78	0.42%	2006-05-01
XAR	SPDR S&P Aerospace & Defense ETF	우주항공/방산	1,640	33.90	0.35%	2011-09-28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사이버보안	6,100	75.07	0.60%	2015-07-07
BUG	Global X Cybersecurity ETF	사이버보안	1,300	16.53	0.50%	2019-10-25
HACK	ETFMG Prime Cyber Security ETF	사이버보안	1,940	14.78	0.60%	2014-11-11
IHAK	iShares Cybersecurity and Tech ETF	사이버보안	615	6.92	0.47%	2019-06-11
URA	Global X Uranium ETF	글로벌 원전	1,850	89.45	0.69%	2010-11-04
URNM	Sprott Uranium Miners ETF	글로벌 원전	1,100	38.83	0.85%	2019-12-03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클린 에너지	4,980	129.98	0.42%	2008-06-24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클린 에너지	1,940	18.03	0.60%	2007-02-08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클린 에너지	1,080	25.72	0.61%	2005-03-03
TAN	Invesco Solar ETF	태양광	2,010	97.52	0.69%	2008-04-15
MOO	VanEck Agribusiness ETF	농기계, 비료	1,910	33.94	0.56%	2007-08-31
DBA	Invesco DB Agriculture Fund	농산물 선물	2,220	80.91	0.93%	2007-01-05

자료: ETF.com,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여행업 ETF: 밸류에이션과 수요를 고려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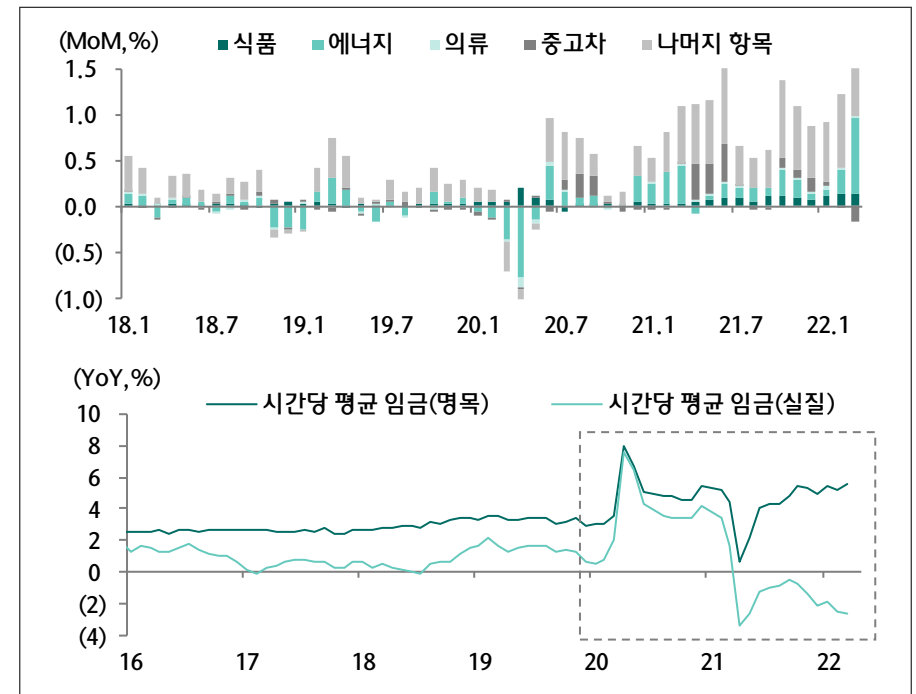
- 가격(P)이 상승하고, 경제 전반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물량(Q)이 증가하는 업종 감소
- 필수소비재와 더불어, 여행/항공 등의 섹터는 정상화 과정에서 본격적인 수요 차별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섹터
- 다만, 관련 업종 내에서도 구분 필요.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긴축 과정에서 이익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존재하기 때문

### 리오프닝 현실화 가운데 관련 테마 ETF들의 PSR 비교



주: 상위 60% 비중 내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들의 가중평균 PSR 기준. 아래 차트는 비행기 여행과 대중교통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하는 서베이 응답 비중  
 자료: Ipsos, ETF.com,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Strategist 이재만 | 중국/신흥국전략 김경환 | ETF/해외채권 박승진 | Quant 이경수

### 에너지, 식품가격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물량(Q) 모멘텀 둔화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정상화 + 긴축 조합: 여행 관련 ETF의 우선순위는 JETS와 BED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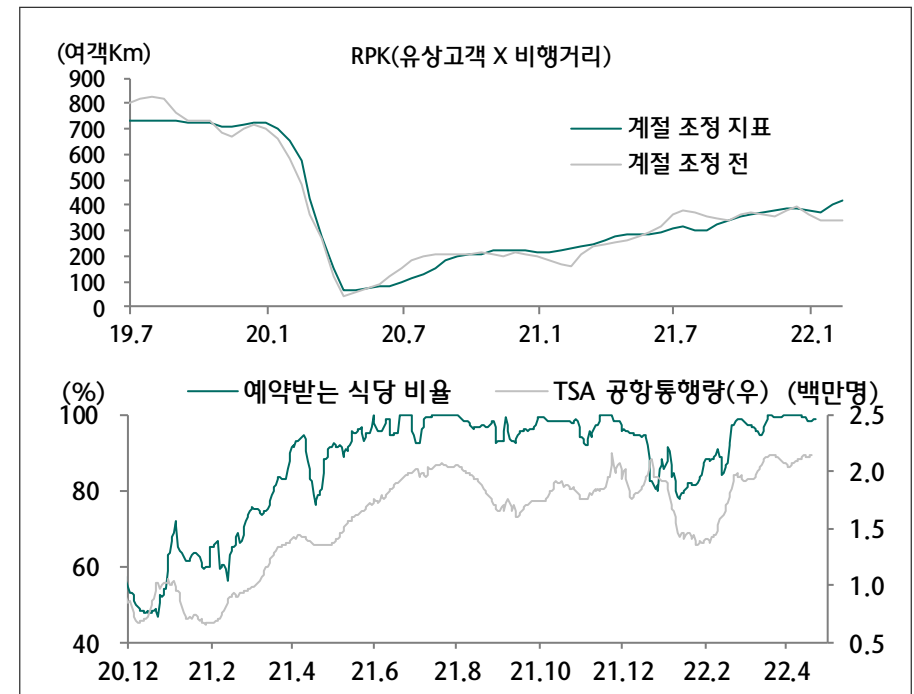
- 긴축 과정에서 금리 레벨이 상승하면, 밸류에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 과거 주가 차별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밸류에이션과 수익 구조를 함께 고려한 리오프닝 테마 ETF의 우선순위는 1) JETS, 2) BEDZ, 3) CRUZ, 4) JRNY, 5) AWAY
- 인력 조정, 노선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반영되어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세가 완화되며 항공기업의 수익 안정 요인으로 작용

### 긴축 국면: S&P500 실적주와 비(非) 실적주의 성과 차이

S&P500지수 월/분기 평균 주가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전월/전분기)	
		상승	하락
12개월 예상 EPS (전월/전분기)	상승	+1.4% (월간)	+0.9% (월간)
		+4.9% (분기)	+1.7% (분기)
	하락	-0.3% (월간)	-1.7% (월간)
		-2.6% (분기)	-2.4% (분기)

주: 2005년 이후 월간/분기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RPK(여객수송) 지표와 식당 이용 현황: 정상화 진행 중



자료: IATA, Opentable, 하나금융투자

## JETS, BEDZ, CRUZ, JRNY, AWAY: Q의 증가 기대 가능한 여행업 ETF

- JETS는 여객항공 기업 중심의 ETF. United, American, Delta Airline 등이 주요 편입 종목
- BEDZ는 호텔 기업들로 구성된 종목. CRUZ는 크루즈를 중심으로 숙박, 항공 기업을 함께 편입
- JRNY는 여행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구성. AWAY는 여행 플랫폼 기업을 편입하는 ETF

### JETS, BEDZ, CRUZ, JRNY, AWAY의 주요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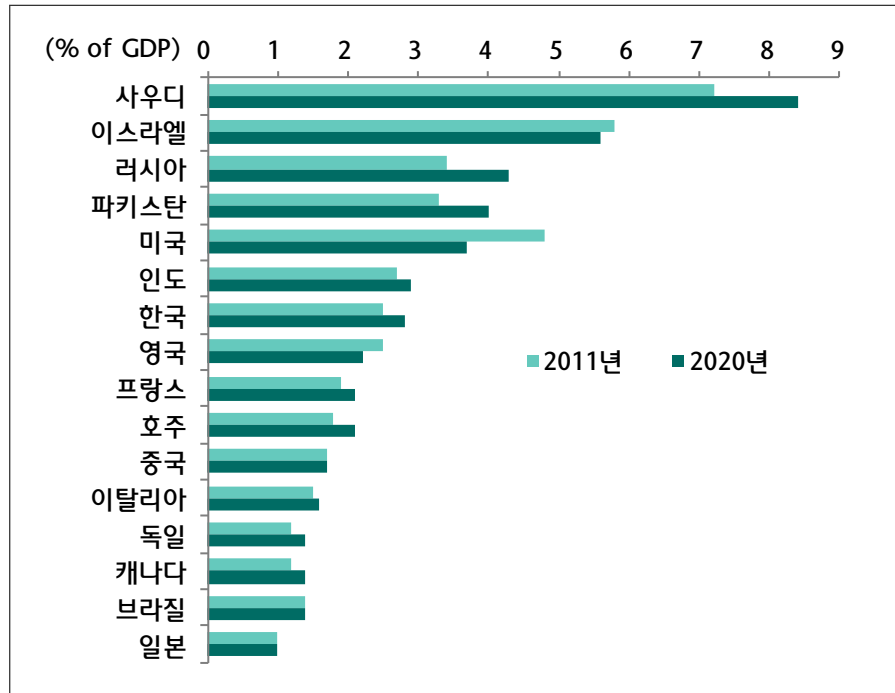
	JETS	BEDZ	CRUZ	JRNY	AWAY
ETF 명	U.S. Global Jets ETF	AdvisorShares Hotel ETF	Defiance Hotel, Airline, and Cruise ETF	ALPS Global Travel Beneficiaries ETF	ETFMG Travel Tech ETF
추종 지수	US Global Jets Index	-	BlueStar Global Hotels, Airlines, and Cruises Inde	S-Network Global Travel Index	Prime Travel Technology Index
상장일	2015-04-28	2021-04-20	2021-06-03	2021-09-07	2020-02-12
보수율(%)	0.60	0.99	0.45	0.65	0.75
구성종목 수	52	28	56	76	68
AUM(\$)	36.2억달러	702만달러	4,241만달러	698만달러	23.0억달러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	재량적	Tiered	Multi-Factor	재량적
국가 비중	미국 74%, 캐나다 5%, 일본 3%, 터키 2%	미국94%, 영국 5%	미국 65%, 영국 9% 아일랜드 3%, 일본 3%	미국 64%, 일본 9% 프랑스 8%, 홍콩 6%	미국 41%, 호주 12% 홍콩 11%, 스페인 7%
특징	시장에서 유일하게 항공 및 여행주만 포함	호텔업에만 투자하는 ETF	크루즈, 호텔/리조트, 항공사 부문 기업에 투자	호텔 및 운송 뿐만 아니라 레저, 럭셔리 관련주 투자	에어비앤비, 우버 등 여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포함

자료: Bloomberg, ETF.com, 하나금융투자

## 방위산업 ETF: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지출금액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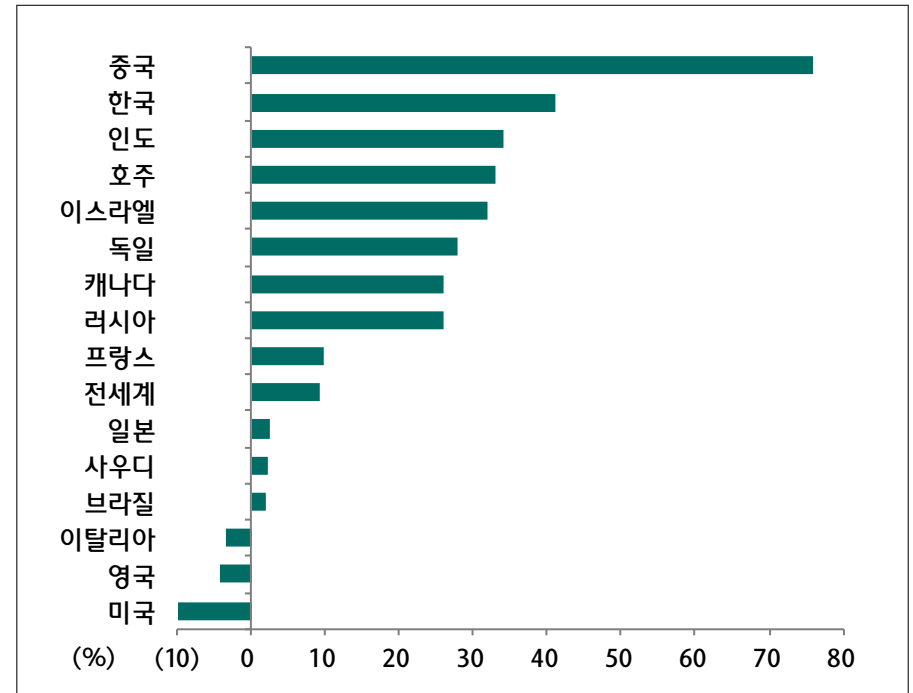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전반에 걸쳐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 주요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전무한 상황에서 감소해왔던 방산 관련 지출과 투자가 증가할 전망
- 미국의 경우 경제 규모 대비 방산 예산 비중과 지출금액이 지난 10년 전보다 감소한 상황. 지출예산 증액 필요성↑

주요국들의 GDP 대비 군비 지출금액 비중



자료: OWID, 하나금융투자

주요국들의 군비 지출금액 변화



주: 2011년 대비 2020년 군비 지출액 변동률  
자료: SIPRI, 하나금융투자

## 방위산업 테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모멘텀 부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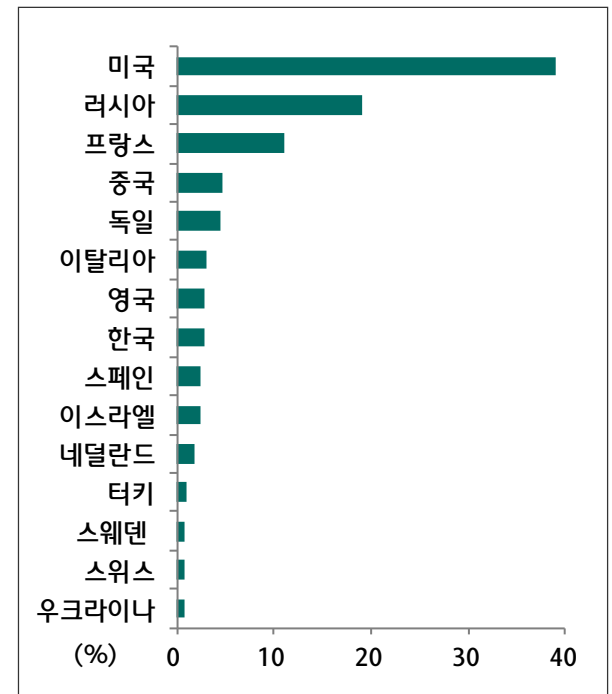
- 러시아의 군사 공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군사적, 인도적 지원 확대 중
- 방위산업과 관련된 각국의 군비 지출 증가는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미국 방산기업들의 실적개선으로 연결될 것
- 특히 미국의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을 앞두고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방산 섹터의 주가 모멘텀 부각될 전망

### 주요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내용

	군사적 지원	금전적 지원	인도적 지원
미국	29억 달러 규모의 군용장비 및 무기 지원	138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식량과 약품
영국	살상/비살상용 무기와 17억 파운드 규모의 군사적 지원	36억 파운드	6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
캐나다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지원 및 2,500만 달러 규모의 비살상 무기	6.2억 달러	1,000만 달러 모금 및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뉴질랜드	1,6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비살상 무기 및 군사적 지원		35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식량 및 법적 지원
프랑스	1.2억 유로 규모의 무기 및 프랑스 인공위성 접근 허용	3억 유로	41톤 규모의 구조용품 및 소방인력과 구급인력 지원
독일	살상/비살상 무기 지원	6.65억 유로	530만 유로 규모의 이동식 병원 및 1만 톤 규모의 식량 지원
노르웨이	헬멧, 마스크, 무기 등 군사적 지원		2억 유로 규모의 지원
대한민국	NATO를 통한 군사적 지원	중점협력국으로 지정	1,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 글로벌 무기시장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



자료: SIPRI, 하나금융투자

## ITA: 규모가 가장 큰 대표 방위산업 ETF

- ITA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방위산업 ETF.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종목의 최대 비중을 22.5%로 제한
- 항공 관련 방산기업들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록히드 마틴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의 37.9%를 차지
-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39.0억달러. 현재 37개의 기업들로 구성

### ITA의 주요 내용들

항목	내용
ETF 명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 ETF
추종 지수	DJ US Select / Aerospace & Defense
상장일	2006-05-01
보수율(%)	0.42
구성종목 수	37
AUM(\$)	39.0억달러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
국가 비중	미국 100%
특징	단일 종목 편입 비중이 22.5%로 제한되어 있으나 진입장벽 높아 업종 특성상 소수의 기업에 집중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ITA의 주요 편입 기업

종목	비중
Raytheon Technologies	22.12%
Lockheed Martin	15.81%
Boeing	7.31%
General Dynamics	4.51%
Northop Grumman	4.47%
TransDigm Group	4.40%
L3Harris Technologies	4.37%
Textron	4.33%
Howmet Aerospace	4.17%
Axon Enterprise	2.67%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XAR: 동일가중 방식 적용하는 방산 ETF. 간접 산업들의 주가 영향↑

- XAR 역시 ITA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방산업 ETF.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를 4:4:2의 가중치로 구성
- 포트폴리오 구성의 특성상 Virgin Galactic, Maxar Tech 등 우주항공 기업들의 비중이 ITA보다 높은 특징
- 동일가중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17.1억달러. 현재 34개의 기업들로 구성

### XAR의 주요 내용들

항목	내용
ETF 명	SPDR S&P Aerospace & Defense ETF
추종 지수	S&P Aerospace & Defense Select Industry
상장일	2011-09-28
보수율(%)	0.35
구성종목 수	34
AUM(\$)	17.1억달러
비중결정방식	동일가중
국가 비중	미국 100%
특징	우주항공방위 산업이 85% 이상을 차지 대부분 회사들이 3% 내외의 비중으로 분포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XAR의 주요 편입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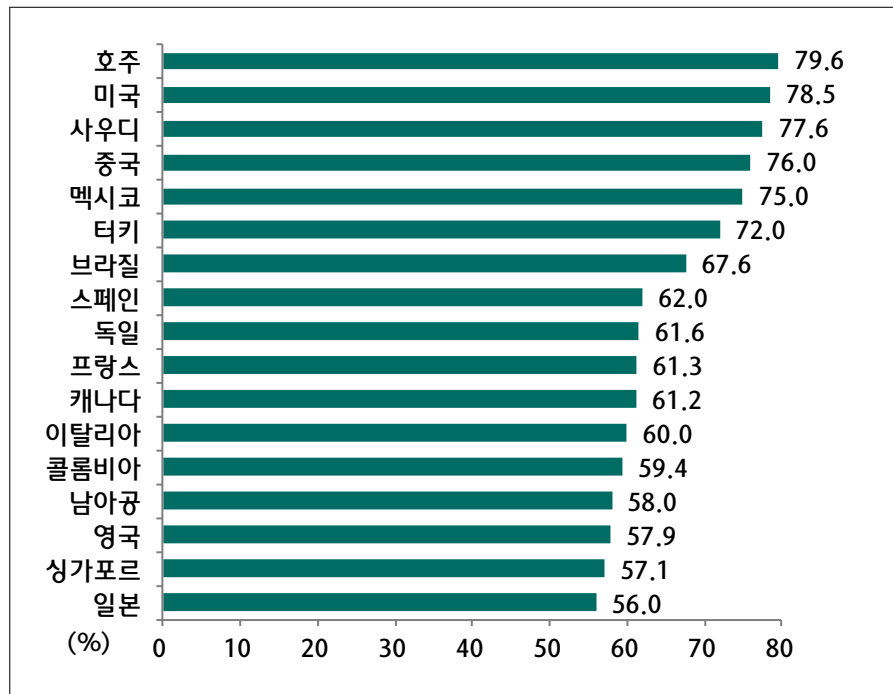
종목	비중
Virgin Galactic	3.92%
Huntington Ingalls	3.85%
Aerojet Rocketdyne	3.78%
Maxar Technologies	3.77%
Curtiss-Wright	3.76%
BWX Technologies	3.71%
Raytheon Technologies	3.70%
Howmet Aerospace	3.70%
Spirit AeroSystems	3.68%
General Dynamics	3.66%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사이버보안 ETF: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가운데 중요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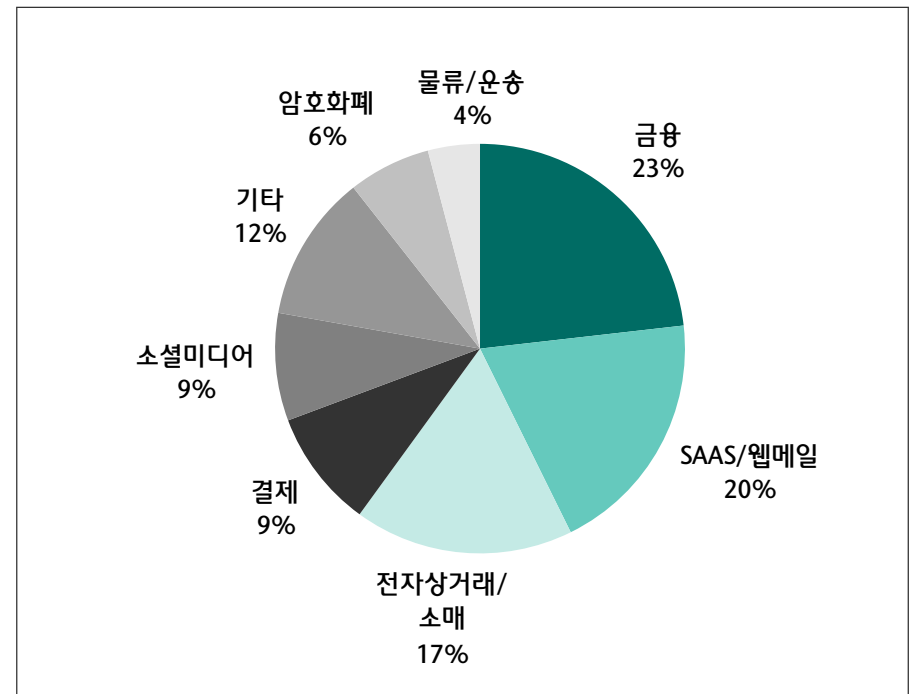
-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 원격수업을 비롯한 생활과 업무 패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 중
- 금전적 피해와 직결되는 금융, 결제, 전자상거래 부문과 주요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SAAS, 웹 부문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

글로벌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



주: 2020년에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피해(영향)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비중  
 자료: CompariTech, 하나금융투자

사이버 공격의 타겟이 된 주요 업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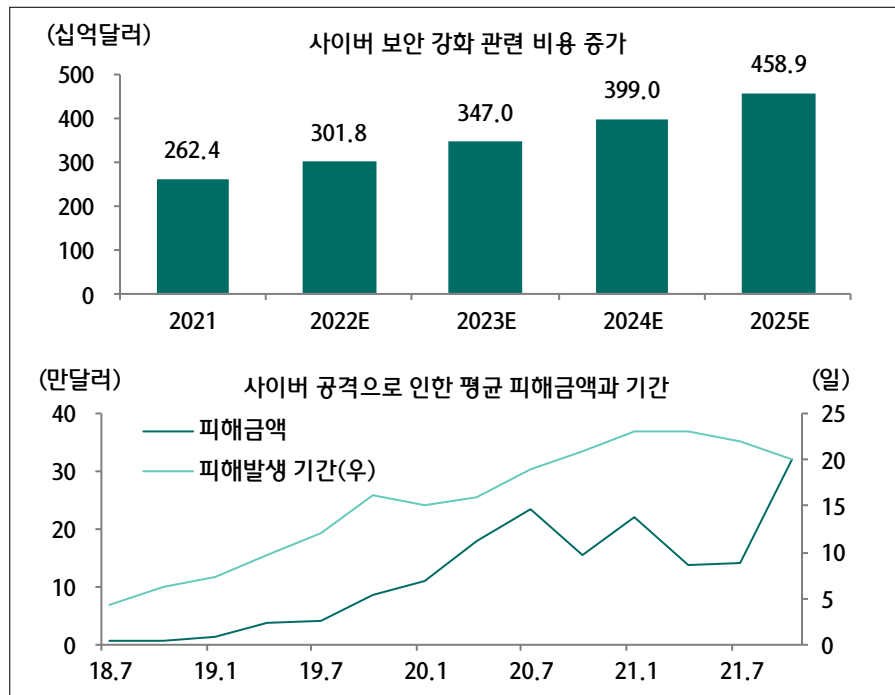


주: 2021년 4분기 기준  
 자료: APWG, 하나금융투자

## 사이버보안은 국가간 갈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 가파른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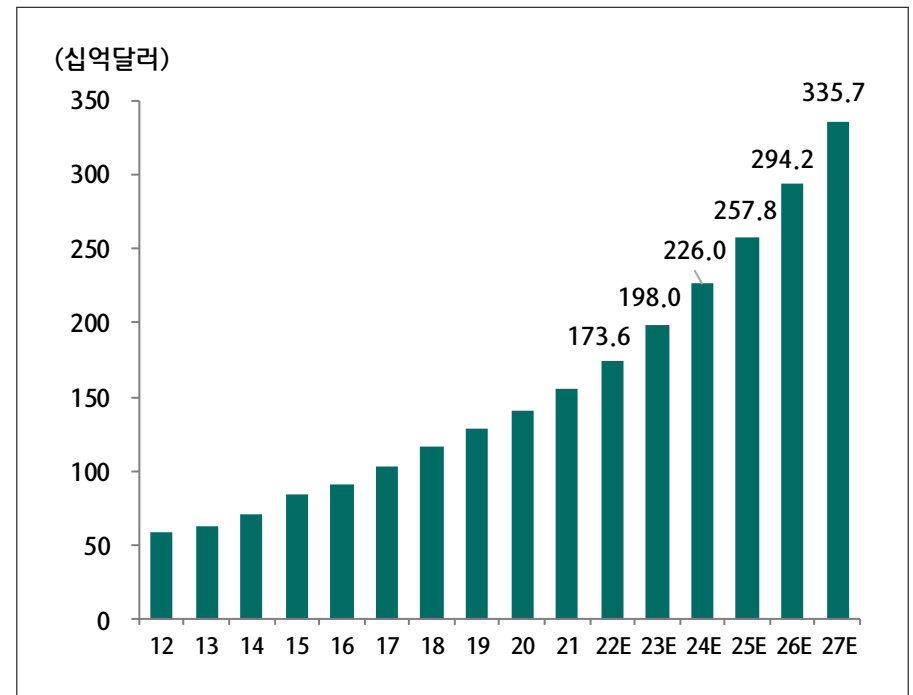
-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보안 산업에 대한 지출 및 투자 증가로 연결. 사이버보안 시장의 성장 기조 지속될 전망
- 우크라이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디도스 공격과 어나니머스의 러시아 기관 해킹 역시 대표적 참고 사례
- 사이버보안 시장은 매년 10~14%의 성장세 이어질 전망. 향후 5년에 걸쳐 시장 규모가 2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

###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며 관련 비용 지출도 증가



자료: Cybersecurity Ventures, Coveware, 하나금융투자

###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2027년에 335억달러까지 성장 전망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하나금융투자

## CIBR: 규모가 가장 큰 종목, BUG: 매출 기준 선정 후 시총으로 비중 조절

- CIBR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사이버보안 ETF.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기업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 속하는 종목들도 함께 구성
- BUG는 매출의 50% 이상이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업들로 구성. 시가총액 기준에 맞춰 비중을 수정 반영하는 구조
- CIBR의 시가총액은 61.7억달러, 일 평균 거래금액 74.3백만달러. BUG의 시가총액은 13.2억달러, 일 평균 거래금액 16.3백만달러

### CIBR의 주요 구성 종목 비중

종목	비중
CrowdStrike	6.64%
Palo Alto Networks	6.14%
Cisco Systems	5.54%
Zscaler	5.40%
Cloudflare	5.19%
Splunk	3.28%
Akamai Technologies	3.28%
Booz Allen Hamilton	3.24%
Mandiant	3.18%
Juniper Networks	3.14%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BUG의 주요 구성 종목 비중

종목	비중
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	8.33%
Palo Alto Networks	8.24%
Fortinet	6.53%
NortonLifeLock	5.43%
Tenable	5.36%
CrowdStrike	5.16%
SailPoint Technologies	5.08%
Trend Micro	4.91%
Avast Plc	4.84%
Qualys	4.71%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HACK: 최초의 사이버보안 ETF, IHAK: 신흥국 기업도 편입 대상으로 선정

- HACK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ETF.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서비스 기업들로 구성. 시총과 유동성 고려한 비중 조절
- IHAK은 BUG처럼 매출의 50% 이상이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업들로 구성. 신흥국 기업까지 편입 대상으로 선정
- HACK의 시가총액은 19.9억달러, 일 평균 거래금액 14.4백만달러. IHAK의 시가총액은 6.3억달러, 일 평균 거래금액 6.8백만달러

### HACK의 주요 구성 종목 비중

종목	비중
CrowdStrike	5.08%
Splunk	4.79%
Palo Alto Networks	4.73%
Akamai Technologies	4.70%
BAE Systems	4.55%
VeriSign	4.36%
Fortinet	4.35%
Cloudflare	4.29%
ETFMG Sit Ultra Short ETF	4.21%
Cisco Systems	4.19%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IHAK의 주요 구성 종목 비중

종목	비중
Citrix Systems	5.36%
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	5.31%
Juniper Networks	4.76%
Palo Alto Networks	4.65%
Akamai Technologies	4.45%
CrowdStrike	4.36%
Booz Allen Hamilton	4.32%
Fortinet	4.27%
Vmware	3.87%
Trend Micro Incorporated	3.63%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친환경 & 원전 ETF: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책 모멘텀 부각

-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영향으로 일부 계획 수정 필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 모멘텀 기대수
- 단기 대응은 기존 화석 에너지로, 중장기 대응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를 함께 활용

### 주요 국가들의 기존 탄소중립 계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의 변화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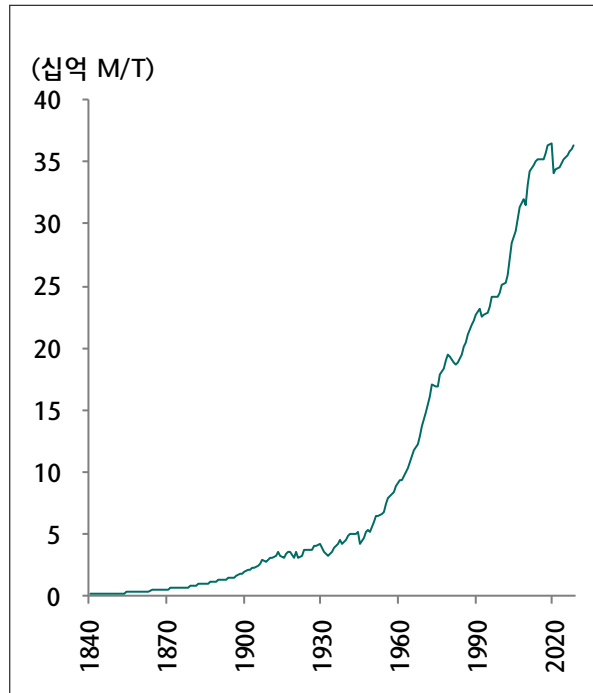
지역	탄소중립 목표시기	대표정책	예산(조원)	특징
미국	2050년	청정에너지	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까지 65%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li> <li>• 203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li> <li>•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감축 지원을 위해 셰일 오일 생산 확대 추진</li> </ul>
EU	2050년 ('30년까지 55% 감축)	그린딜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터리 자립 추진</li> <li>• 공정전환 지원 및 탄소국경세 도입</li> <li>•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10%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로 확대</li> <li>• 원유 및 천연가스 매각 대금이 전쟁 자금으로 쓰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어려움</li> </ul>
중국	2060년	제로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li> <li>• 교통 수송 중심의 신에너지차 추진 및 탄소배출제 시행</li> <li>• 올해 석탄 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해 3억톤(7%) 증산하기로 결정</li> </ul>
일본	2050년	그린성장전략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화목표로 지자체별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젝트 지원</li>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전력 공급 문제 대응 위해 원전 재가동 언급</li> </ul>
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 25%에서 37%로 크게 증가</li> <li>• 영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2030년까지 원전 한 곳 제외 모두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원전 비중 25%로 올릴 수 있도록 원전 업계 지원 약속</li> </ul>

자료: 언론보도, Enerdata, 하나금융투자

## 수급 안정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 원전 정책 재개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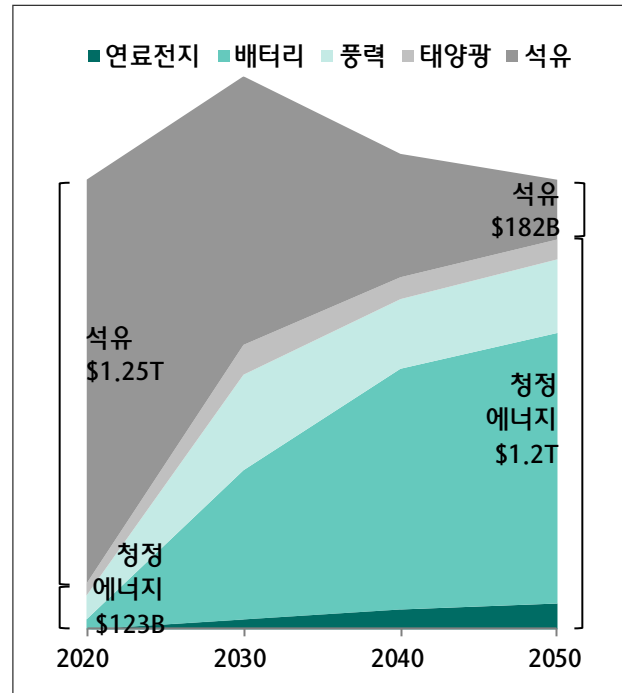
- 에너지 수급 불균형 현상은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분야의 성장과 정책 적용 속도간의 시차도 크게 작용
- IEA는 정책과 수요 리스크의 영향으로 원유/가스 부문의 투자 규모가 팬데믹 이전대비 26% 적은 3,5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를 3배(3.4조달러) 이상 확대해야 하고, 원전 등의 추가 대안 확보 필요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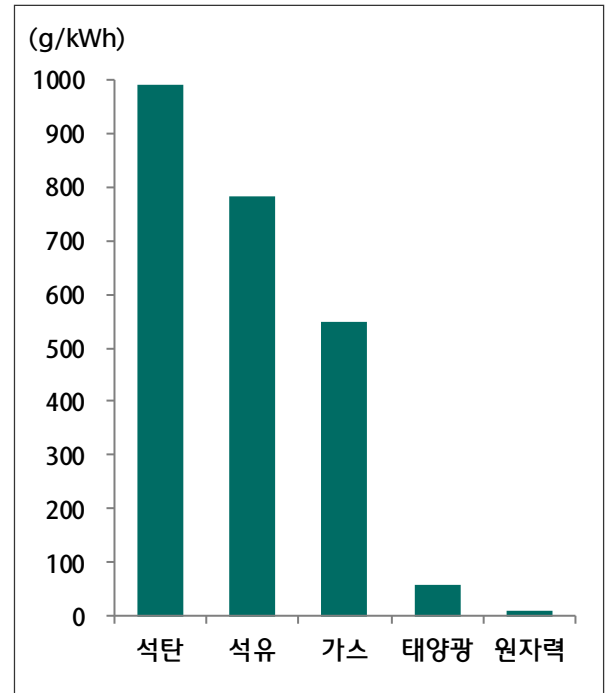
주: 화석 연료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2021년은 예상치. 자료: ICOS, 하나금융투자

탄소중립까지 예상되는 에너지시장 변화



자료: IEA, 하나금융투자

주요 에너지원들의 탄소배출량 비교



자료: IAEA, 하나금융투자

## 1) 신재생 에너지: 기존 계획대비 강화될 정책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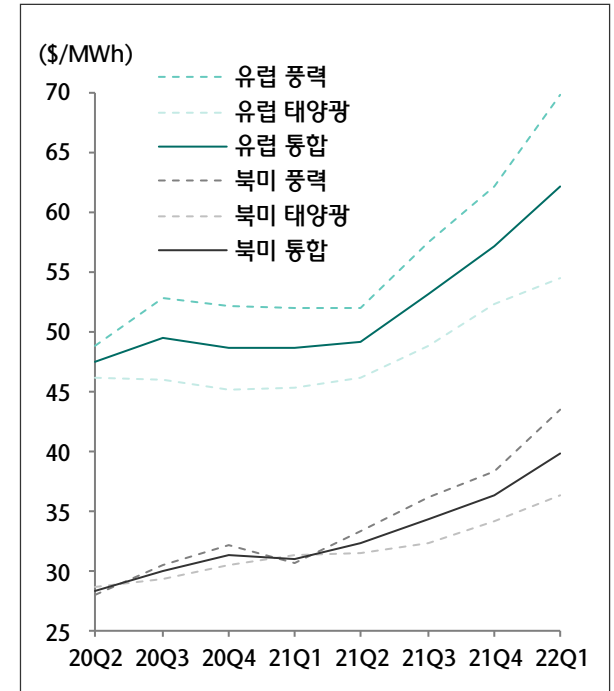
-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가속화 예상
- 탄소중립 계획에 맞춰 수립되어 있던 정책 전략의 속도 빨라지고, 규모는 증가할 것
- 독일의 경우 에너지 전환 정책에 300억유로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

###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계획

국가	내용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 비중	풍력 및 태양광/열 발전량 비중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집행위원회는 가스 공급을 다양화하고 난방과 발전에서 가스를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li> <li>• 연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2/3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제시</li> </ul>	42.8%	19.1%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신재생과 원전 병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언급</li> </ul>	24.3%	10.3%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혼합해 영국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 발표 계획</li> <li>• 수입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li> </ul>	43.7%	28.3%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 36~38%로 확대할 목표</li> </ul>	20.2%	10.7%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리스크 대응으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300억 유로(약 40조 7,000억원) 추가로 투입할 계획</li> </ul>	44.5%	32.1%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시장 안정 위한 슈퍼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에 집중</li> </ul>	23%	15.3%

자료: 언론보도, Enerdata, 하나금융투자

### 신재생 에너지 가격 추이



자료: LevelTen PPA, 하나금융투자

## 2) 원전: 유럽은 이미 변화 중. 탄소배출 적은 원전 투자 증가할 전망

- 다수의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 공백을 해결할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원전을 주목.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원전 활용에 적극적
-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
- 에너지 수급 불균형 가운데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의 정책, 투자 모멘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국가들의 원전 투자 계획

국가	내용	참고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 체계(Taxonomy)에 포함하는 입법안을 확정해 발의</li> <li>• 대부분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높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의 국가만 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 높여도 EU 가스 수입의 40%, 원유 수입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 한계 존재</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원전 확대 전망</li> <li>• 과거 탈원전 선언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간 적절한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까지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 6기를 포함 최대 14기 원전 건설할 계획</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까지 최대 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li> <li>• 2035년까지 기존 대형 원전 가동 중단, 대신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새로 건설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7GW 수준인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3배 이상 많은 24GW로 확대할 계획</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심화된 전력 공급 문제 대응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언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 에너지만으로 탈탄소 관련 시간표를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강화</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으로 원전 재가동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부를 관할하고 연정에 한 몫한 녹색당의 정치적 이유</li> <li>•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곳의 기여도는 전체 전력의 5%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에너지의 30%를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부는 폐쇄 위기에 처한 민간 원전 지원을 위해 6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li> <li>•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이 청정에너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 사용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28개 주에서 93개 원자로를 갖춘 55개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미국 전체 전력의 20%를 차지</li> </ul>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 ICLN, QCLN, PBW, TAN: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대표 ETF

- ICLN과 QCLN, PBW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기업들을 편입하는 ETF들. TAN은 태양광 섹터로만 구성된 종목
- ICLN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높고, QCLN은 태양광과 전기차 비중이 높은 종목. PBW는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구성
- PBW의 경우 동일가중 방식으로 종목 비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의 주가 변동 영향이 더 크다는 특징도 보유

### ICLN, QCLN, PBW, TAN의 주요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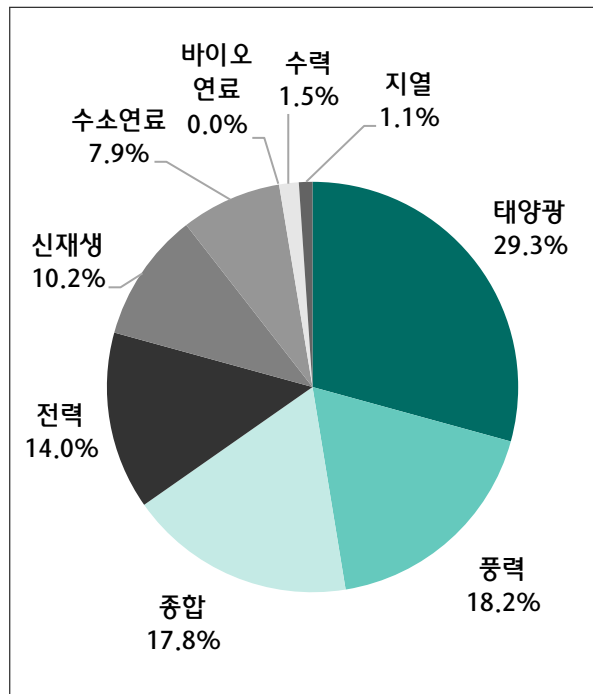
	ICLN	QCLN	PBW	TAN
ETF 명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Invesco Solar ETF
추종 지수	S&P Global Clean Energy Net TR	NASDAQ Clean Edge U.S. Liquid Series Index	Wilderhill Clean Energy Index TR	MAC Global Solar Enegy
상장일	2008-06-24	2007-02-08	2005-03-03	2008-04-15
보수율(%)	0.42	0.60	0.61	0.69
구성종목 수	83	60	78	44
AUM(\$)	51.6억달러	20.4억달러	11.4억달러	21.7억달러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	시가총액 가중	동일가중	Tiered
국가 비중	미국 40%, 덴마크 14% 캐나다 6%, 스페인 5%	미국 82%, 홍콩 9%, 캐나다 4%	미국 87%, 중국 4%, 캐나다 3%	미국 53%, 홍콩 13% 중국 8%, 이스라엘 4%
특징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종목	전기차와 태양광 섹터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종목당 비중을 4%로 제한하여 종목을 편입	태양광 장비, 원재료, 설치 업체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R&D 비용이 많은 기업들을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참고] 친환경 ETF들의 세부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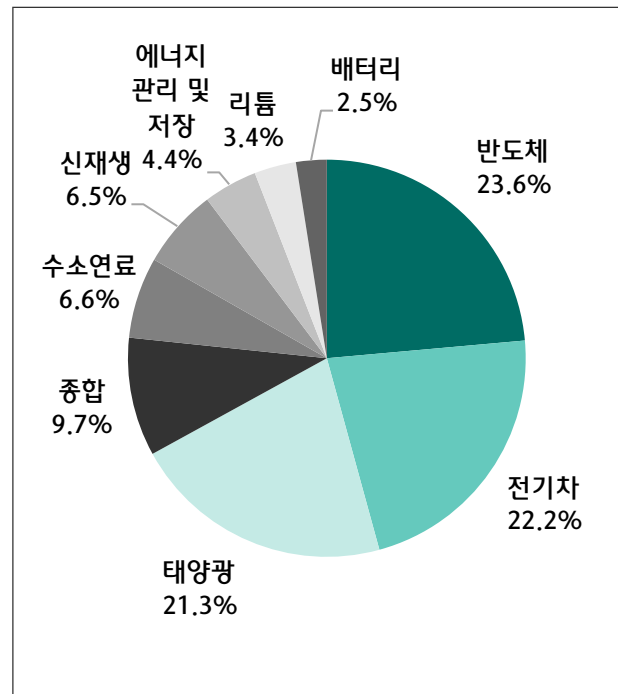
- ICLN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 QCLN과 PBW는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태양광 발전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친환경 기업들은 이익 구조의 특징(고 PER)을 고려해본다면, 긴축이 본격화되는 시기보다는 속도 조절 국면에 관심 필요

ICLN의 세부 에너지별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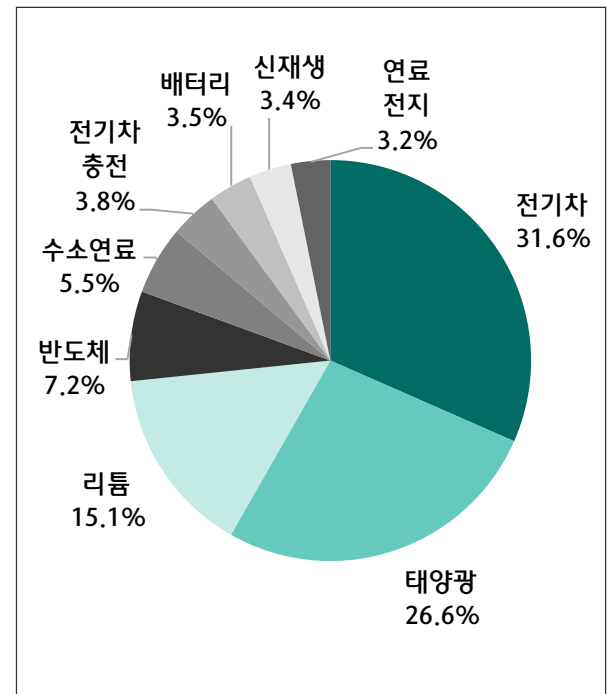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QCLN의 세부 에너지별 익스포저 비중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PBW의 세부 에너지별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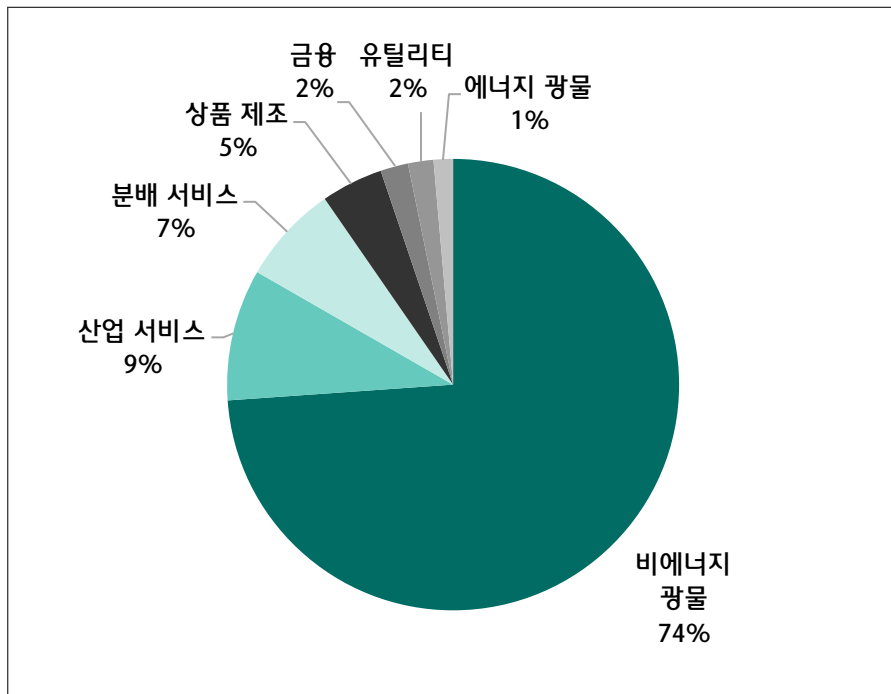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URA: 우라늄 채굴 및 원전 산업 기업들을 편입하는 원전 ETF

- URA는 우라늄 채굴 및 탐사, 원전 부품 생산과 개발 등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업들을 편입하는 ETF
- 지난 2010년에 상장된 Global X의 종목으로, 대형 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시가총액 방식으로 구성
- 캐나다 45.6%, 호주 12.79%, 카자흐스탄 5.1%, 한국 9.3% 등 9개 국가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

URA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URA의 주요 편입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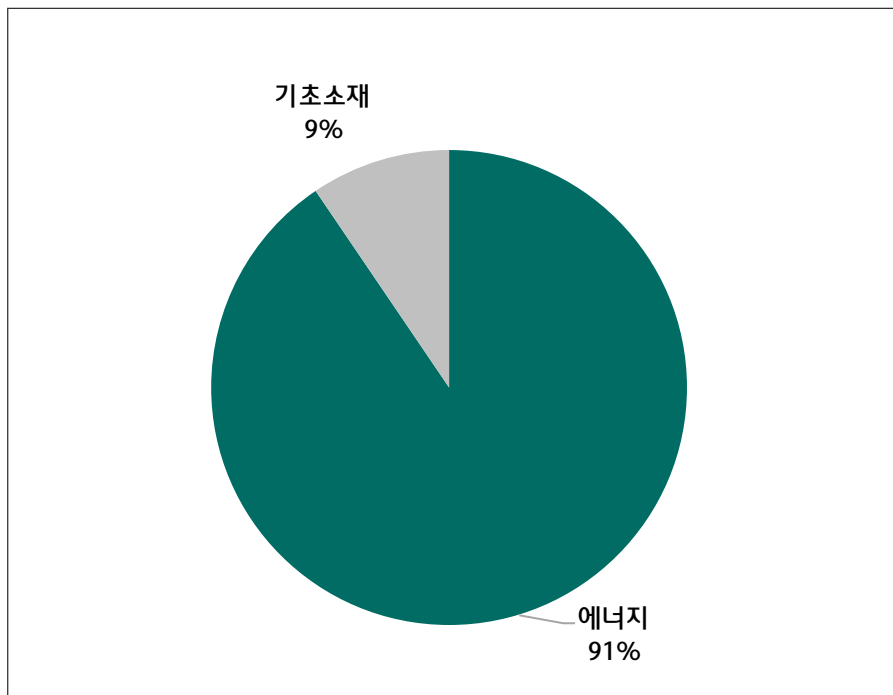
종목	비중
Cameco	25.48%
Sprott Physical Gold Trust Units	6.55%
NexGen Energy	5.58%
National Atomic Company	5.38%
Paladin Energy	4.08%
Energy Fuels	3.52%
Uranium Energy	3.46%
Dension Mines	3.15%
Yellow Cake	2.72%
Mitsubishi Heavy Industries	2.29%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URNM: 우라늄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된 ETF

- URNM은 우라늄 채굴, 탐사, 생산 관련 기업을 편입. 매출의 50% 이상이 우라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목에 투자
- 지난 2019년에 상장된 ETF 종목. URA 대비 대형주 비중은 적은 반면, 소형주 비중이 높은 특징 존재
- 캐나다 62.2%, 카자흐스탄 15.2%, 호주 12.4% 등 6개국 기업들을 편입. 37개 내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구성

### URNM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Sprott, 하나금융투자

### URNM의 주요 편입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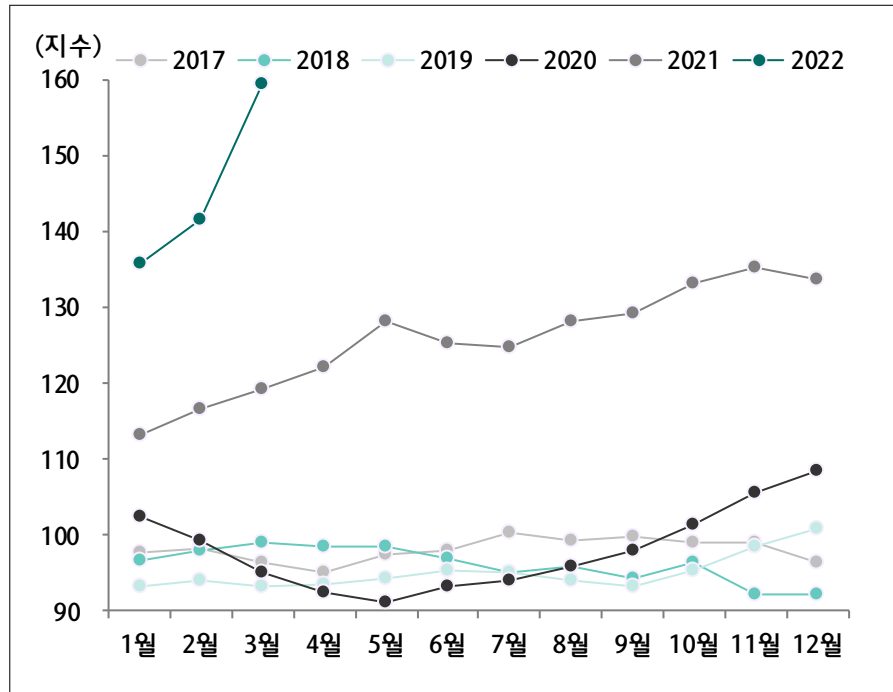
종목	비중
National Atomic Company	16.07%
Cameco	15.39%
Sprott Physical Uranium Trust	10.84%
Paladin Energy	4.95%
Uranium Energy	4.74%
NexGen Energy	4.49%
Yellow Cake	4.49%
Energy Fuels	4.06%
Dension Mines	3.93%
CGN Mining	3.12%

자료: Sprott, 하나금융투자

## 농업/농산물 ETF: 생산 감소, 식량가격 상승 가운데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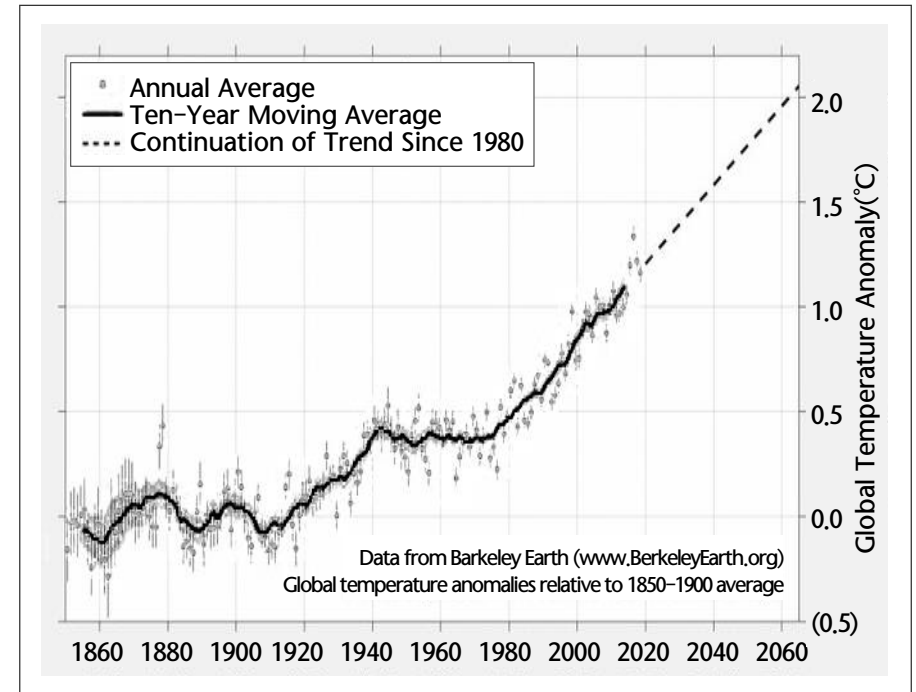
- 기후 변화와 수확 차질, 물류 비용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식량가격의 상승세(10년래 최고 수준)가 지속
-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농산물의 작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급 불균형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식량과 관련된 농산물 ETF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

FAO 세계 식량가격 지수



자료: FAO(UN 식량농업 기구), 하나금융투자

기후변화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세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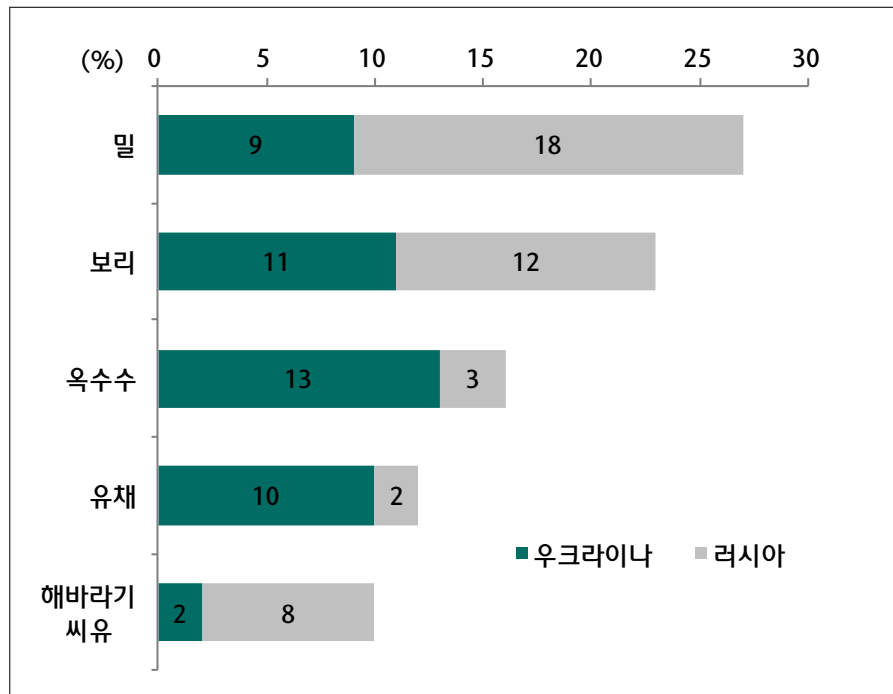


자료: Berkeleyearth, 하나금융투자

## 농업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모멘텀이 더해지는 대표적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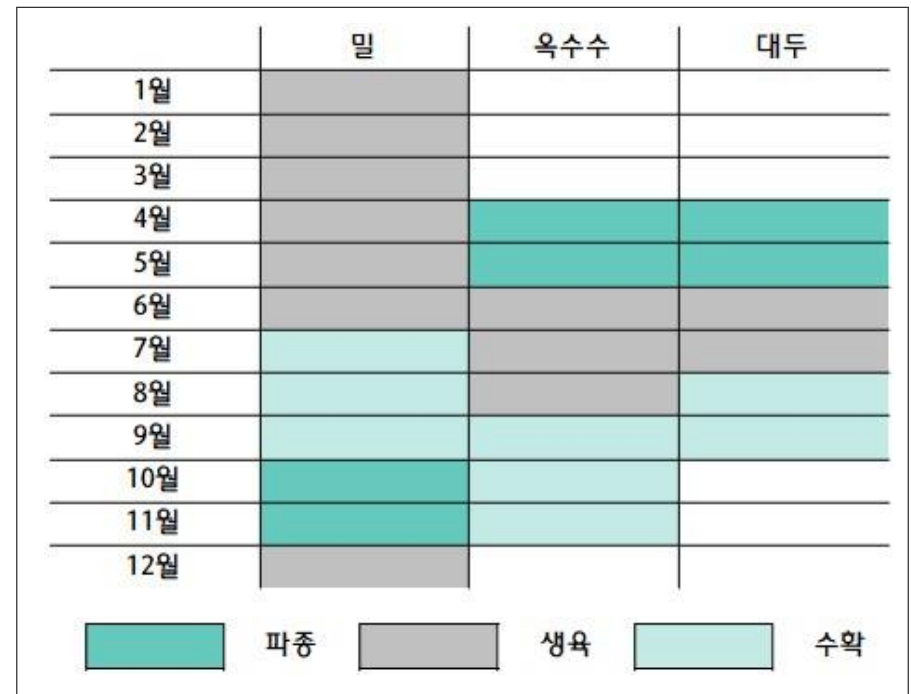
- 경기와 수요 전망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산업금속 가격과 달리 농산물은 공급 이슈가 가격에 더 크게 영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농업대국. 밀,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 수출국가
-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경작지 감소와 파종, 수확 불확실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 미칠 전망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곡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2016년~2020년 평균 수출 비중. 글로벌 교역량 대비 러, 우 수출량  
 자료: FAO, 하나금융투자

우크라이나의 곡물 파종, 수확 시기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 농업 관련 기업들을 편입하는 MOO, 농산물 선물을 추종하는 DBA

- MOO(주식)와 DBA(선물)는 농산물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 ETF 종목
- MOO는 농기계, 비료, 식품, 종자 관련 기업을 편입. 농기계 기업 Deere, 동물 제약기업 Zoetis 등이 대표 종목
- DBA는 선물을 편입하여 직접 가격을 추종하는 ETF. 밀, 옥수수, 대두, 설탕 등 10개의 주요 농산물 선물과 단기국채(T-Bill)로 구성

### MOO의 편입 상위 10개 종목과 비중

종목	비중
Deere & Company	8.45%
Bayer AG	8.20%
Zoetis	7.06%
Nutrien	6.89%
Archer-Daniels-Midland	5.88%
Corteva	5.30%
IDEXX Laboratories	5.18%
Tyson Foods	4.21%
Tractor Supply Company	3.56%
CF Industries	2.78%

자료: ETF.com, 하나금융투자

### DBA의 각 농산물 편입 비중

종목	비중
밀	15.51%
옥수수	14.90%
대두	13.46%
설탕	10.80%
생우	10.60%
커피	10.47%
코코아	9.25%
돼지	8.65%
비육용소	3.36%
목화	3.00%

자료: ETF.com, Invesco, 하나금융투자

## 고배당 ETF ①: 배당수익률 2% 이상 AUM 상위 종목

티커	ETF 명	기초자산	AUM (억달러)	일 평균 거래량 (백만달러)	상장일	총 보수율	연 배당 수익률	배당 주기	운용사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미국 고배당주	\$448.6	\$202	2006-11-10	0.06%	2.86%	분기	Vanguard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미국 고배당주	\$348.4	\$247	2011-10-20	0.06%	3.24%	분기	Charles Schwab
DVY	iShares Select Dividend ETF	미국 고배당주	\$223.6	\$151.39	2003-11-03	0.39%	3.8%	분기	Blackrock
SDY	SPDR S&P Dividend ETF	미국 고배당주	\$216.4	\$68.55	2005-11-08	0.35%	2.78%	분기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FVD	First Trust Value Line Dividend Index Fund	미국 고배당주	\$127.7	\$65.01	2006-12-18	0.70%	2.62%	분기	First Trust
HDV	iShares Core High Dividend ETF	미국 고배당주	\$99.6	\$134.66	2011-03-29	0.08%	3.5%	분기	Blackrock
SPYD	SPDR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ETF	미국 고배당주	\$66.2	\$106.99	2015-10-21	0.07%	3.97%	분기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IDV	iShares International Select Dividend ETF	DM 주식(EX. U.S.)	\$47.1	\$32.53	2007-06-11	0.49%	5.83%	분기	Blackrock
VYMI	Vanguard International High Dividend Yield ETF	전세계 주식(EX. U.S.)	\$38.4	\$32.43	2016-02-25	0.22%	4.23%	분기	Vanguard
SPHD	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ETF	미국 대형주	\$36.6	\$70.50	2012-10-18	0.30%	4.2%	월간	Invesco

주: 배당수익률은 2021년 기준  
 자료: ETFDB.com, 하나금융투자

## 고배당 ETF ②: 연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티커	ETF 명	기초자산	AUM (억달러)	일 평균 거래량 (백만달러)	상장일	총 보수율	연 배당 수익률	배당 주기	운용사
SDIV	Global X SuperDividend ETF	전세계 고배당주	\$8.35	\$7.02	2011-06-08	0.59%	10.84%	월간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DVYE	iShares Emerging Markets Dividend ETF	EM 고배당주	\$6.91	\$10.22	2012-02-23	0.49%	9.58%	분기	Blackrock
KBWD	Invesco KBW High Dividend Yield Financial ETF	미국 금융주	\$4.53	\$2.30	2010-12-02	2.59%	9.31%	월간	Invesco
DEM	WisdomTree Emerging Markets High Dividend Fund	EM 고배당주	\$20.2	\$17.56	2007-07-13	0.63%	7.65%	분기	WisdomTree
DIV	Global X SuperDividend U.S. ETF	미국 고배당주	\$7.21	\$3.30	2013-03-11	0.45%	6.69%	월간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FGD	First Trust Dow Jones Global Select Dividend Index Fund	DM 고배당주	\$6.44	\$4.04	2007-11-21	0.57%	6.02%	분기	First Trust
IDV	iShares International Select Dividend ETF	DM 주식(EX. U.S.)	\$47.1	\$32.53	2007-06-11	0.49%	5.83%	분기	Blackrock
HDEF	Xtrackers MSCI EAFE High Dividend Yield Equity ETF	DM 주식(EX. 북미)	\$9.48	\$5.43	2015-08-12	0.20%	5.04%	분기	DWS
PEY	Invesco High Yield Equity Dividend Achievers ETF	미국 고배당주	\$12	\$7.08	2004-12-09	0.53%	4.55%	월간	Invesco
FDL	First Trust Morningstar Dividend Leaders Index Fund	미국 고배당주	\$24.3	\$23.43	2006-03-09	0.45%	4.47%	분기	First Trust

주: AUM 4억달러 이상 종목 기준, 배당수익률은 2021년 기준  
 자료: ETFDB.com, 하나금융투자

※ Appendix: 주요 테마 ETF 종목들

테마	ETF
온라인 리테일	ONLN, IBUY
바이오	IBB, XBI
클린에너지	ICLN, QCLN
5G	FIVG, NXTG
반도체	SOXX, SMH
핀테크	FINX, ARKF
블록체인	BLCN, BITO
ESG	ESGU, SUSA
미래산업	ARKQ, DTEC
탄소배출권	KRBN, GRN
메타버스	META, MTRV
스포츠/게이밍	ESPO, HERO

테마	ETF
인공지능	ARKQ, AIQ
로봇	ARKQ, BOTZ
사이버보안	CIBR, HACK
클라우드 컴퓨팅	SKYY, CLOU
우주항공	ARKX, UFO
자율주행/전기차	IDRV, DRIV
인터넷	FDN, ARKW
농업	MOO, DBA
배터리	LIT, BATT
원전	URA, URNM
리오프닝	AWAY, PEJ
SPAC	SPCX, SPAK